

순천 추석 명절 정 나눔으로 '풍성'

경찰 · 농협 · 풍덕동 · 중앙로터리 · 국토정보소 '사랑 실천'

순천시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 분위기가 위축된 가운데 추석명절을 맞아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정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순천경찰서와 순천농협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범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후원금과 생필품 등을 지난 24일 전달하며 위로 격려했다.

양 기관에 따르면, 지난 3월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를 선발하여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번 후원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아동 등 기초수급 가정에게 농협 상품권과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또한, 풍덕동 새마을협의회가 10kg 쌀 20포대 후원을 시작으로, 지난 해 순천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풍덕동과 MOU결한 이수라이온스클럽에서 100만원 상당 유기농 누룽지 50박스, 순천새중앙교회에서 후원금 50만원을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취약가구를 위해 풍덕동사무소에 기탁했다.



순천 풍덕동 이수라이온스클럽 누룽지 후원.

순천중앙로터리클럽은 돌봄이 필요한 마을학교와 공동체 아이들을 위해 과일 30박스를 순천시 풀뿌리 교육자치협력센터에 전달했다.

국토정보 플랫폼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순천지사에서 지난 24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찾아 시각장애인들의 코로나19 극복과 직업재활 등을 위한 후원금 135만원을 기탁했다.

조영일 순천경찰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순천경찰서와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정순금 풍덕동장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손길이 끊임없이 이어진데 대해 감사드리며 나눔과 배려 문화 조성으로 주민이 행복한 동네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구례 '대한민국 SNS 대상' 2년 연속 수상

최우수상 수상 쾌거

구례군은 작년에 이어 '대한민국 SNS 대상'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SNS 대상'은 공공기관과 기업의 SNS 활용 성과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국내 SNS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며, 지난 25일 각

부분 수상 명단을 발표했다.

구례군은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해왔으며, 매체별 특성과 연령층을 고려하여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 발생한 최악의 수해 피해 당시, 군 SNS와 '구례군 SNS 서포터즈' 간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지역민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

는 등 위기 상황 속에서도 소셜미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와 수해피해로 인해 SNS를 통한 구례군 홍보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SNS를 통해 구례군만의 특색 있는 감성과 활발한 소통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구례=오광범 기자

곡성 이재민 심리안정용품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600키트 전달... 일상 복귀 지원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최근 지난 8월 수해로 인한 이재민에게 재난 심리안정 용품 총 600키트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재난 경험자들이 일상으로 조속하게 복귀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곡성읍, 오곡면, 고달면, 오산면 이재민과 재난 현장을 경험한 공무원들에게 재난 심리안정용품을 지원하게 됐다.

이번에 전달된 심리안정용품 키트는 생필품 12종으로 구성됐다. 파스, KF-94마스크, 과자꾸러미, 지압기, 치약 칫솔 세트, 비누, 밴드, 티슈, 파우치, 리플릿, 상담 가능한 기관 연

락처가 꼼꼼하게 담겼다. 총 600개의 심리안정용품 키트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수해를 입은 각 마을에 전달될 예정이다. /곡성=이상석 기자



광양시발전협 · 지역사회안전협 지역 현안 정보 공유

추석 연휴기간 종합상황실 운영 · 코로나19 대응 방역수칙 준수 철저



광양시발전협의회 · 지역사회안전협의회는 유관기관 · 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현안 및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의회장인 정현복 광양시장은 지난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진수화 광양시의회 의장, 김중호 광양경찰서장, 전신기 광양우체국장 총 3명의 신임 기관장을 소개하고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하면서 "시정 발전에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광양형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추석맞이 종합대책 추진 및 종합상황실 운영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배알도 관광형 섬정원 조성 추진 ▲광양 시민의 노래 전편 개정 등 시 전반적인 현안 사항을 설명하고 유관기관 · 단체와의 소통과 공감을 당부하면서 많은 협조를 구했다.

또한 ▲코로나 대응 기업인입국절차 간소화 지원 ▲'선사인 광양' 안

심골목 조성사업 ▲공동주택 비상구 자동개폐장치 설치 ▲2021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광양하이텍고 학과 개편에 따른 지역민들의 관심과 지원 ▲한국항공대학교 신입생 모집 및 취업 ▲전기안전사고 예방 홍보 등 각 기관별 현안 사항에 관심과 홍보를 당부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추석 명절 대규모 인구가동을 통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시민들 모두 각자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정부방침에 따라 상황별 대처할 예정이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양사랑상품권을 구매해 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제철소협력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읍면동 이통장회의에서 주민들에게 화재발생시 피난 및 대처 방법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화재피해를 최소화해 달라"며 광양소방서에 협조 요청했다. /광양=조순의 기자

여수 추석 내달 1~2일 생활쓰레기 수거 중단

여수시는 추석을 앞두고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 속에서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기간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3일부터 29일까지 추석맞이 청결활동을 실시하고,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5일은 마무리 청결활동을 펼쳐 연휴기간 동안 어지럽혀진 시가지를 청소할 계획이다.

5일간의 연휴기간 동안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수거차량과 환경미화원 등으로 구성된 '생활폐기물 기동 처리반'을 배치해 각종 청소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연휴기간 생활쓰레기 수거는 시민 편의를 위해 추석 전날인 9월 30일과 10월 3일, 4일은 평상시와 같이 정상 수거하고, 추석 당일인 10월 1일과 다음 날인 2일 이틀간만 휴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명절 대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여수=최준원 기자

보성 추석 연휴 회천수산물 위판장 운영

내달 4일까지 특별관리 대상 지정... 방역 강화

보성군은 추석 연휴 회천수산물 위판장을 운영하는 대신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 방역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피서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휴업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보성회천수산물 위판장은 지난 15일부터 이용객 편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업을 재개했다.

보성군은 추석 연휴 위판장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 철저한

방역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 구성된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건물 입구는 주출입구 2곳만 개방하고, 실내 동시 수용인원이 적정 인원(5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발열체크 확인, 사회적 거리두기(2m), 이용객 방역기록 작성, 손목식별띠 부착 등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보성=장국도 기자

고흥군의회, 구례군 수재민에 김 170상자 전달

고흥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24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구례 수재민을 위해 김 170상자를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이번 위문품은 코로나19로 많은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폭우 피해까지 더해진 구례 수재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자 마련되었으며, 호우 피해가 심각한 수재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송영현 의장을 비롯한 고흥군의회 의원들은 "피해를 입은 구례 주민들이 신속히 어려움을 극복하여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고흥=송승철 기자



자연주의 가족마을 곡성